

목차

I. 소개

II. 초기 청교도 준비론자

III. 기타 청교도 저술가들

IV. 기타 신학자들

V. 준비론에 대한 반박

VI. 연관된 성경 말씀의 상고

VII. 결론

I. 소개

준비적 은혜는 다수의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적 개념이다. 청교도들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570년경부터 일부 영국 신학

자들은 죄인이 어떻게든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¹

이 교리는 일반적으로, 일부 다른 식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중생하지 않는 죄인이 중생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자체 점검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인은 자신의 죄악을 혐오하고 자비를 바라도록 스스로를 자극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적인 설교에 참여하는 신중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중생을 위한 유력한 후보로 세울 수 있었다.

이 견해를 지지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죄인을 준비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준비적 은혜가 유기된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생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II. 초기 청교도 준비론자들

A. 윌리엄 퍼킨스 (1558-1602)

윌리엄 퍼킨스는 비록 열렬한 이중 예정론자였지만, 준비론에 사로잡힌 청교도들 가운데 초창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복음 사역(특히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중생을 위해 죄인을 준비시킨다고 가르쳤다. 퍼킨스의 방대한 저서인 '양심에 관한 사례들'은 1606년에 사후에 출판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퍼킨스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 죄인들로 하여금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외적인 수단,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님은 자신의 뜻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우리 본성의 고집을 부수고 제압하기 위한 외부적이거나 내적인 십자가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을 격동하게 한 자신만의 죄를 주목하고 알도록 하신다... 그는 법적인 공포로 자신의 심장을 가격하고... 형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하며, 자신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한다.²

그러므로 퍼킨스는 중생 이전에 죄인의 본성의 완고함이 정복되어 진다고 가르쳤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연해지고, 죽어있는 죄인이 자신의 부패의 정도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법적 공포에 사로잡혀 구원을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퍼킨스는 "죄인의 본성, 감정, 의지에 대한 이 네 가지 행동이 반드시 은혜의 열매는 아니며, 그것들은 단지 은혜보다 선행하는 준비적인 작업일 뿐이라고 덧붙인다.³

퍼킨스는 이러한 준비적 단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교령신학에서 "인간의 회심을 위한 공로적인 준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장난하는 것을 막았다.⁴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없지만, 그러한 좋은 것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었다. 택자와 유기자가 모두 구원을 필연적으로 일으키지 않는 성령의 공동된 사역의 수혜자이고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억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하게 기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는 타락했다. 따라서 퍼킨스는 중생이 인간의 의지의 선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의지의 능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생은 인간 능력의 작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만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후자는 타락할 때 상실했지만 전자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에 관한 한 회심을 위한 준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지의 선함에 관한 한, 그러나... 죄인은 회심을 위한 준비를

결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의지 자체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⁵

'자연적으로 타락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회심과 칭의를 준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퍼킨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 하지만 확실한 진실은 의지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퍼킨스는 여러 준비적인 작업을 구별하고, 이를 준비의 시작과 가책의 시작으로 세분한다. 전자는 율법의 사역이라고 명칭을 한다.

퍼킨스에 의하면 이러한 준비의 시작은 은혜는 아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고, 죄인을 구원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단계이다. 양심의 가책,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정죄감은 지옥에 대한 첫 경험일 뿐이며,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반면에 가책의 시작은 은혜이며, 참된 회심으로 이어진다. 유기는 전자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후자는 오직 택자에게만 허락이 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 단독구원 뿐만 아니라, 율법의 사역 하에서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괄한다.⁷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다. 단지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비참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준비를 한다. 이러한 준비적 작업은 사람의 본성적 고집이나 양심의 참소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고민을 완화시키고 복종시킨다.⁸

그리고 퍼킨스는 비록 그것들이 회심을 위해서 죄인을 준비시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며, 죽음의 양심을 참소하는 사역으로서 율법의 열매들이라고 덧붙인다.⁹ 퍼킨스는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보편적으로 초청을 하시고, 택자에게만 특별히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믿었다.¹⁰

또 다른 작품인 '겨자씨 알갱이'나 '구원에 효과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은총'에서, 퍼킨스는 죄인에게 "자신의 정신적 가난을 보고 느끼기 위한 노동"과 "자신 자신에게 불쾌감을 느끼기 위한 노동"을 촉구한다.¹¹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핍에 대해 약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것은 희미하다고 해도 이 은혜의 불꽃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퍼킨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선행적인 은혜의 시작은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짜이다.”라는 글에서 이와 같은 경고를 했다.¹²

준비적 은혜를 주창한 모든 청교도 가운데, 퍼킨스는 신자의 양심의 갈등에 관한 해결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다. 퍼킨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리는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유기자도 이 준비적인 경로를 따라 얼마간의 거리를 갈 수 있고, 내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대로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느낄 때에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의식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이 "준비" 또는 "죄책감"의 결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퍼킨스의 의도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안전감에 사로잡힌 경솔한 자들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서 가장 작은 은총의 흔적이라도 발견한 죄인에게 좋은 용기를 주고자 격려하려고 애썼다. 퍼킨스는 "중생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시발된 중생의 결과와 증거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중생을 소원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미 중생을 했거나 은혜의 상태에 진입을 했음을 보여준다.¹³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지점에서 퍼킨스는 일관성의 원칙이 깨진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희미한 소원이나 작은 순종도 은혜의 불꽃이 꺼져 버리면, 거짓 은혜의 증거일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후대의 몇몇의 신학자들이 “죄인은 진심으로 중생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죄인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퍼킨스는 믿음에 대한 소망은 중생의 첫 번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할 점은 ... 비록 너희가 아직 확고하고 활기찬 은혜가 부족하지만, 만약 너희가 진실로 바란다면 결코 완전히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소망은 씨앗이나 잉태 또는 새싹이다.¹⁴ “누구든지 갈증이 나면, 나에게 와서 마시게 하여라” 이것은 비록 전부는 아니겠지만 퍼킨스의 준비적 은혜에 포함된 독의 일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확실히 한다. 죄인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죄인은 그의 영적 지위를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B. 윌리엄 에임즈 (1586-1633)

윌리엄 에임즈는 퍼킨스의 제자였으며, 영국에서 네델란드로 이민을 갔고, 도르트 회의의 어드바이저로 참석했다. 에임즈 역시 구원의 은혜를 위한 죄인의 준비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임즈의 책 신학의 정수를 번역한 편집자 존 유스텐은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에임즈는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가장 중차대한 과업은 그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 죄의 고백, 자신의 확고하지 않고 양가적인 의지를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의지가 전달이 되고 조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음으로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¹⁶

에임즈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구별한다. 하나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본성의 순리상 믿음에 선행하며 준비적이고 예비적인 원인으로서, 양심의 공포와 율법에 의해

서 야기된 두려움으로 구성이 된다. 다른 하나는 믿음에 후행하는 것이며 믿음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¹⁷ 전자에 관해서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에임즈는 그의 유명한 작품인 "권력과 그 사례와 연관된 양심"에서,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설명한다. 죄인은 회심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명명된 제목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 봐야 한다... 요구되어 지는 것은... 양심의 확신... 죄로 인한 구원에 대한 절망, 슬픔과 두려움이 혼재된 마음의 진정한 검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은혜에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자신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고민들이 요구되어 진다... 진지한 은혜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허기나 갈증으로 부른다. 이 모든 것들이 중생 이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자연적인 사람은 이것은 완수할 수 없기에, 이러한 자연적인 준비 행위들이 종내에는 아무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¹⁸

“에임즈는 항변파 알미니안의 신학이 인간중심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을 반대했다. 그는 항변파 알미니안의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에 관한 권능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편해했다.¹⁹ 그럼에도 에임즈는 정통파 신학자들 가운데 홀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항변파 알미니안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교정장치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유스덴은 말한다.²⁰

에임즈는 회심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인 분석에서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지기는 하지만, 그는 과녁을 바르게 맞히는 정통 신학자들, 곧 프란

시스 고마루스(1562-1641)나 요하네스 마코비우스(1588-1644)와는 달랐으며, 예정교리에 관해서도 완전한 정통신학자는 아니었다.²¹

이 점에 관해서 에임즈는 정통신학의 위치에서 이탈했다.²¹ 그는 주도적인 정통신학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예컨대, 마코비우스는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서는 믿음과 회심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단계이든지 하나님의 중생시키심과 연관이 있기에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의 노력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²²

비록 에임즈를 알미니안과 함께 묶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들을 매우 명백히 반대했다.²³ - 에임즈의 입장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와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의 신학적 오류에 대한 위험한 양보이다. 우리는 에임즈의 관점이 도르트 신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에임즈의 준비론이라는 누룩은 그의 책 신학의 정수를 통해서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책이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주요 신학교에서 필독서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⁴

C. 리처드 십스 (1577-1635)

리처드 십스는 성령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하여 많은 설교를 하였지만, 교리적인 엄격함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강조만을 한다.²⁵ 그는 영적인 온정이 있는 사역을 위해 주장한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청중들의 마음의 전환에 대한 각성을 추구하고, 신학함의 목적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 차갑고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진리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²⁶ 그는 퍼킨스와는 달리 준비와 가책 사이에 아무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 성령에 즉시 응답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사전 제한이 없이 은혜를 바랄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⁷

필요조건은 죄인이 자신 안에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에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부드러운 사역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십스는 주장한다. 성령의 시발적인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완전한 은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항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바가 된다.²⁸ 예컨대, 어떤 이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불꽃에 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꽃이 그들에게 아무런 고통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²⁹ 다른 이들은 성령의 내적인 방문을 거절한다.²⁹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자주 찾아오셔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했다. 성령께서 자신들의 의지로 서있는 지점보다 더 높은 거룩의 수준으로 기꺼이 이끌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³⁰ 유기자가 성령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거절할 때 그들은 성령에 저항한다(행 7:51). 그들은 말씀선포를 거절하거나 설교자를 박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에 저항한다. 그러다 택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은 저항할 수 없으며 특별하다. 반면에 유기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은혜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악함이 더해진다.

다른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을 즐거워하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기자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들에게도 은혜로운 성령의 활동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을 붙들지 않는다... 성령은 그분의 자비스러운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³¹

다른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을 즐거워하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기자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들에게도 은혜스러운 성령의 활동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을 붙들지 않는다... 성령은 그분의 자비스러운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십스는 죄인들에게 복된 메신저이신 성령을 즐거이 맞으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영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힘쓰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유익해서 상한 갈대가 되야 한다³²

십스의 책 상한 갈대는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성령의 상하게 하심은 죄인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상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결박해야 한다.³³ 구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죄인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성령께 자신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³⁴ 십스는 요시아왕을 예로 제시한다(역대하 34:27).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요시아왕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왕에게 이미 중생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죄와 유다왕국의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슬퍼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것은 중생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순종이다.

리처드 십스의 교리는 알미니안의 저항할 수 있는 은혜와 너무나 유사하다. 우리는 그가 자연적인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가장 극단까지 갔던 준비론자라는 주장에 확실히 동의할 수 있다.³⁵

III. 다른 청교도 저술가들

비록 퍼킨스, 에임즈, 십스가 준비론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글을 쓴 청교도이지만, 다른 청교도들은 그들의 저술과 설교에서 준비적 과정의 개념을 언급한다.

존 오웬 (1616-1683)은 그의 작품 제3권에서 "중생을 위한 준비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오웬은 다음과 같이 쓴다 : 일반적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그 영혼에 작용하는 사전적이고 준비적인 작업이 중생에 선행한다. 그러나 그 작업 안에 중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유도될 수도 없다.³⁶ 오웬은 이것들은 물질적인 성향을 의미할 뿐이며, 중생과 같은 성질의 은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건조되고 안정화된 상태의 나무는 불이 불기에 적절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³⁷ 비슷한 방식으로 죄인의 마음도 준비가 되며,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중생의 불꽃을 일으키신다.

오웬에 대한 명백한 언급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 심지어 몇 명의 탁월한 신학자들에 의해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는 표현, 곧 준비적 은혜는 젖은 나무를 건조시키는 것과 같아서 불꽃이 더 쉽게 점화될 수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 우리의 영혼의 성향은 물질적이지 않기에,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전능한 은혜는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오웬은 이것이 준비작업이라고 명시한다. 그는 우리의 중생에 이르기 위한 의무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관하여 설명한다.³⁹ 이것들은 외적인 행위들로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석을 하거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부지런히 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는 것들이다.⁴⁰ 죄인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참여함으로써 그가 듣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영적인 감각이 살아 나거나, 감정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자극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자신의 죄를 확신할 수가 있거나, 심지어 인격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오웬은 말하길, 이러한 것들은 선하며 유용하며 중생을 위한 외적인 준비작업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⁴¹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이나 초기적인 단계

에서 자신들에 주어진 것들을 진지하게 발전시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⁴² 이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음 가운데 부드럽게 주어진 은혜를 거절한다.⁴³

다른 청교도들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충고에서 그들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원을 바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피하기를 소원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진지한 마음의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곳의 실재를 믿기에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적인 인간이 영적인 복으로서 구원을 바란다고 말할 수 없다.

토마스 맨튼 (1620-1677)은 죄인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충고한다. “큰 불확실성은 있지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의무는 없으시지만, 끈질긴 간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단할 수 있을까? 그는 은혜를 베풀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사람의 노동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노동이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⁴⁴

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암울한 메시지인가? 그리스도의 약속과 얼마나 다른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 7:7-8)

쥘리안 알레인 (1634-1668)은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 가운데 죄인이 회심준비에 관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호소한다. 그는 권면하기를 죄인은 명확한 시각과 생생한 감각, 죄책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현재의 비참함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애써야 하며...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그것을 쳐야 한

다.⁴⁵ 그는 덧붙이기를,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깨우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하게 되는데 초대하시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부탁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⁴⁶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존 오웬의 존경을 받았던 윌리엄 거스리(1620-1665)는 준비론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그럼에도 경직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⁴⁷ 그러나 슬프게도 거스리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확신에 대한 숨통을 끊어버린다.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선행적인 준비가 있는 사람들과, 종종 유기자들에게서도 보이는 불법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⁴⁸ 나는 유기자의 갈등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은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불법-노력 가운데 보인다.⁴⁹"

의미가 있는 단어인 '희귀한'은 많은 말을 한다. 거스리는 고민하고 있는 영혼에게 중생을 확신할 수 있는 표식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식들은 희소하기는 하지만 유기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스리는 무슨 충고를 할 수 있을까? 알레인과 비슷하게, 그는 복음의 제시에 대해서 기뻐하고 친밀하도록 너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 그 제안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거스리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훈계한다.⁵⁰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까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인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구원을 기뻐하지도 않으며, 주께서 채워주실 입도 열지 않는가? 하늘로 가는 길을 어렵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한 일 가운데 많은

것을 망칠 것이다”⁵¹ 그래서 우리는 ‘거스리가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도 복음의 제안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따라서 구주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본다.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인 토마스 쉐퍼드 (1605-1649) 다양한 은혜들을 구별한다. 유기자들은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제외된다. 정밀한 율법적 사역이 필수적이다. “주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심으실 때, 그는 완전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신다”.⁵² 위선자들에게 “시발적인 은혜”, “조명하는 은혜”와 “유효적인 은혜”는 허락하시되 성결케 하는 은혜는 거절하신다. 사람이 “죄를 미워한다”, “주님과 친밀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임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⁵³

쉐퍼드의 회중이 어떻게 자신의 회심을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쉐퍼드는 “사람이 죄를 미워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⁵⁴ 쉐퍼드는 불건전한 회심은 충분하지 않은 율법적 견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죄로 인한 상처가 충분한지 확인하라 : 왜냐하면 믿음과 성화에 있어서 모든 오류는 견비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오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견비가 가짜이거나 약하거나 적다면, 그의 믿음은 가볍게 되고, 그의 성화는 위선이 된다.⁵⁵

IV. 다른 신학자들

네델란드 개혁신학자인 빌헬무스 아 브라켈 (1635-1711)은 준비론에 관한 짧은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준비적인 죄의 확신을 말하며⁵⁶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한다.⁵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확신과 회개와 구원의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 권면은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이다.

“당신은 소망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시오. 그러면 성령의 가장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그것에 반응하시오. 그 은혜에 반항하지 않으려고 주의하시오”⁵⁸ 그러나 그런 소망들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며,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생의 표호가 아니며 중생으로 인도할 뿐이다.

장로교 신학자 윌리엄 G. T. 셰드(1820-1894)는 중생 그 자체를 성령의 사역에 원인을 돌리고 있지만 사람이 신생에 대한 준비적이거나 선행적인 행위로서 죄의 확신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⁵⁹. 그는 “칼빈주의자는 그것을 죄, 죄책, 무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알미니안은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희미한 소망이나 거룩의 시발이라고 여긴다.”⁶⁰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는 중생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중생 이전이거나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⁶¹ 연이어 셰드는 일반은총이나 선행은총에 호소하여, 이러한 은혜에 의해 일어나거나 조력을 받아서 의무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셰드는 이러한 일반은혜의 조력을 받은 의무들을 나열한다. : “읽기와 듣기... 마음의 적용... 확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조명... 양심의 가책... 그리고 외적 생활의 갱신”⁶² 이것들은 유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은혜의 작용방식이다. 사람은 비록 선행적인 죄의 확신과 영적인 죽음의 경험을 여러 날 또는 여러 달을 겪을 수 있지만 한 순간에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적인 구원의 방식이다.⁶³ 게다가 셰드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확신과 중생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만을 확신할 수 있

다고 가르치셨다.⁶⁴ 누가 11:13과 유사구절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의 날 45번에 정리가 되어 있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진실하게 계속해서 구하고 감사해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

이에 관해서 웨드는 에스겔 36장과 요엘 2장에 호소하면서, 그러한 기도의 근거는 성령이 복음 아래서 일반적으로 약속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웨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약속하신다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지서의 그러한 약속들은 특별하면서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새 마음을 약속하셨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웨드는 주장하는데,

중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도 회심이나 성화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보장이나 격려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생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성령을 요청하는 것 또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이미 중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시편 51:10) 중생하지 않는 죄인이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청한 적은 세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⁶⁵

웨드는 죄인은 죄의 확신에 대한 노력에 관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성령은 죄인의 협력이 없이도 죄인에게 죄를 확신시킬 수 있다... 죄인은 이 확신이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의 양심 가운데 만들어진 죄의 감각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자력만 남게 된다. 죄인은 중생 사역에 협력을 할 수 없지만 죄의 확신에 관하여는 협력이 가능하다.⁶⁶

그러나 이 어느 것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 준비는 사람에게 중생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중생의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된다.⁶⁷ 찾고 소망하고 그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중생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기에 죄인은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죄인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⁶⁸ 마지막으로 그의 소망이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죄인은 자신의 이단적인 생각들을 포기함으로써 중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죄인이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하고, 대리적인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는 중생의 은혜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웨드는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한 소견들은 포기되어야 하며,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⁶⁹.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올바른 진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있다면, 그러한 태도도 바뀌어야 하며, 그래야 죄인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다⁷⁰. 모든 준비를 마친다면, 죄인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탐구자가 될 것이며⁷¹, 주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자가 될 것이다⁷². 그럼에도 그것은 가장 높은 가능성일 뿐이며, 구원을 위한 일반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다⁷³.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화란 신학자 헤르만 위시우스 (1636-1708)는 언약의 경륜에서 준비론을 다룬다. 위시우스는 사람이 중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중생하지 않는 자는 나쁜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없다(마 7:18). 그러므로 “사람이 죄 가운데 은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준비론은 수납될 수 없다⁷⁴. 위시우스는 준비론은 세미-펠라기안적인 교리라고 주장한다. 세미-펠라기안은 죄인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 묻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그들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일종의 회개가 있고...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첫 사랑, 그리고 은혜의 갈망이 있다. ⁷⁵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위에서 고려했던 몇몇 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들린다. 위시우스는 퍼킨스의 교리를 문제 삼는다. 그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좀 더 정확하게,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택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고귀하고 풍요로운 영적인 현상을 위한 준비이자, 아울러 중생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오히려 첫 중생을 위한 열매이자 결과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⁷⁶.

위시우스는 성령의 역사가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내재적인 성질에 의해서거나 또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한 중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오히려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은 영적인 죽음과 일치하며, 유기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위장한 행위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실제적인 죽음 가운데 더욱 더 마음이 굳어진다⁷⁷.

위시우스의 결론은 넓은 의미에서나 좁은 의미에서 있어서 중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분을 하여, 신생을 위해서 죄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다. 그것들은 첫 중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오히려 중생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을 위한 어떠한 준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⁷⁸.

위시우스는 택자들이 회심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의 미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준비가 된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급하고 심각한 범죄들로부터 보존하시고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보호하신다. 그러한 죄인들은 교회의 환경에서 자라서, 신적 진리에 대한 많은 명백한 원리들을 자연적인 이성으로 이해하게 되며, 이것들은 중생한 신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⁷⁹.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을 중생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중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에 역사

하신다. 이 준비적 은혜에 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도 동일한 언급을 한다. 카이퍼에 의하면 그들의 기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중생하지 않는 택자들은 신적인 사역, 돌봄, 보호의 대상이다⁸⁰.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위시우스 역시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경솔하게 무관심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석하기를 권면한다. 왜냐하면 설교들 듣거나 회심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보다 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⁸¹.

V. 준비론에 대한 반대

우리는 준비론을 성경과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에 이질적인 것으로서 간주하기에 이 교리를 반대한다. 청교도들에 대하여 존경할 것이 많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달리한다.

A. 중생하지 않은 자는 의를 갈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영적인 갈망은 언제나 충족되어 진다고 가르친다. 의를 갈망하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은 빈손으로 그의 혀를 적셔줄 한 방울의 물조차 얻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눅 16:24).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 왜일까? 거기에는 좋은 기회, 가능성,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그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질 보장이 없을까? 아니다.

팔복에 담겨진 달콤한 위로는 이것이다 :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마 5:6) 준비론자들은 이 달콤한 생명의 빵조각을 떼어내서 개들에게 주고 있다(마 15:26). 실로, 이 팔복에서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요점이다. 즉, 이미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비에 대한 갈망은 에임즈와 반대로 중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중생의 증거이다.

도르트 신경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의와 생명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상하고 깨진 영혼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대신에 도르트 신경의 작성자들은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갈망, 하나님께 드러지는 상한 심령의 제사는 중생한 자들과 복된 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것이라 주장한다(Canons III/IV:R:4, 마태 5:6)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들은 생명의 빵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탐욕스럽게 죄악의 물을 마시지만(요 15:16) 생명의 물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지 않는 것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생명의 빵을 먹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의에 대한 욕망을 만들고 주고, 이것을 만족시켜 주신다.

B.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경은 퍼킨스처럼 유기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이다. 중생이 없다면, 죄인은 영적인 선을 원하지도 않으며, 원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단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바, 자연적인(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중생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고전 2:14은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자연적인 사람의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롬 8:7)

악을 행하는 사람(자연적이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은 빛을 싫어하기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요 3:20)라고 말씀하신다.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하나

님을 찾지도 않으며, 그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는다(롬 3¹¹⁻¹²). 중생하기 이전의 의지는 무기력하다.

도르트 신경은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 하나님은 닫힌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새로운 성질을 의지에 주입하시며, 그 의지는 지금까지는 죽어있었지만, 그가 살리신다 : 악하고, 불순종하고, 다루기 힘든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선하고, 순종적이고, 부드럽게 만드신다 : 그 의지를 활성화시키시고, 강화시키시는데,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III/IV:11).

유일하게 순응하는 의지는 중생한 의지뿐이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순종이나 희미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지가 순응해서 미력하나마 선을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기를 갈망하지도 않으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거나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회개하기를 거절하며 그리고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한다(고전 1:18).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강력한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택자들에게만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 순종의 작은 시작은 중생한 사람들에게에서만 존재한다(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Q&A 114).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많은 불신앙과 혼합되어 있을 지라도 믿음은 중생의 표호이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은혜에 의한 진리의 추구는 존재할 수 없다(마태 17:20, 막 9:24) 진리에 대한 추구한 중생한 자들만이 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모든 구도자들은 예외가 없이 본성에 의하지 않으며(롬 3:11), 진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마태 7:7, 눅 11:10).

C. 준비론은 은혜를 일반화시키며 저항할 수 있게 만든다.

준비론자들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에 더하여, 계몽시키는 은혜, 각성시키는 은혜, 시발적인 은혜를 주장한다. 준비론자들은 “유기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구원하는, 특별한, 역사하는 오직 한 가지 은혜만을 말씀한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D. 준비론은 회심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중생시키시기 전에, 그의 기분이나 기질이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한다⁸².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모든 선제적인 기질이 결여된 돌처럼 완고한 죄인에게조차도 부여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³. 아마도 이 점에 관하여 어떤 청교도 신학자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자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죄인이 율법의 채찍 아래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⁴”.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생과 회심을 위해서 길고도 힘든 죄의 확신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회심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요4), 삭개오, 세리들(눅19), 오순절 회심한 사람들(행2), 사도 바울(행9), 빌리보 감옥의 간수(행16), 이들 가운데 죄의 확신을 위해서 긴 시간이 요구된 경우가 있었는가? 그러한 회심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죄에 대한 확신과 죄로부터 회개를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이 몇 주, 몇 달, 몇 년을 양심의 찢림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청교도 회심교리의 필수불가결한 교리인 것 같다.

쉐드는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중생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그가 중생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의식하기 전까지는⁸⁵”라고 말한다. 하지만, 확실히 그가 자신의 죄를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중생한 상태이다. 만약 그가 중생을 원한다면, 그는 이미 중생한 것이다. 그 어떤 중행하지 않는 자도 중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르트 신경(1:16)은 죄인 앞에 중생을 위한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에 참여를 하면서도 원하는 은혜의 증거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도르트 신경은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평화, 자녀로서의 순종을 추구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기에(도르트 신경 1:16),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은혜가 작용하지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들에 해서 말하고 있다. 신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으로서 간주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경은 목회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불안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한다.

비록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사망의 육체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열망하는 거룩함과 믿음의 정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유기의 교리를 두려워할 이유는 더 더욱 없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가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거나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1:16).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증오, 거룩함을 향한 소망과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빌 1:6). 마태복음 12:20의 상한 갈대는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자녀, 마음이 가난한(마 5:3)는 자신의 죄에 대해 '탄식한다'(마 5:6)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영적 특성들 중 그 어떤 것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 비록 그에게 많은 불완전함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E. 준비론은 확신을 사라지게 하고 절망을 낳는다.

준비론 교리는 극도로 절망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확신을 빼앗아 간다. 페티트가 말한 바대로, 참회와 겸비가 그 자체로 은혜의 인호가 아니라면, 그 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은혜를 주는 교리와는 달리, 준비론은 절망으로 이끈다⁸⁶. 그곳으로 향해야 한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내가 의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죄와 구원에 관한 소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빌 3:9).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오히려 준비론자들은 이러한 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충분히 겸손하지 않았거나, 내가 죄의 확신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마도 내가 나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순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준비론자들은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을 자신들을 중생시켜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있기만 하는 자들로 묘사한다. 비록 은혜의 수단을 완전히 무시라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사람의 내면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준비된 마음은, 회심 경험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보장을 전혀 줄 수가 없다⁸⁷.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요 6:37)”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마 11:28)에게 가능성으로서가 아닌 확실성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영적인 짐을 인식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없다.

준비론 교리가 대세였던 뉴잉글랜드에서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회심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요구되었다⁸⁸. 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죄에 대한 확신 아래에 있게 된 경위를 말해야 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이 더해진 죄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신뢰할만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모든 이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공감할 수 있을만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교도 준비론자들은, 특별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위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노력에 집중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라지를 뽑아내려다 오히려 밀까지 위태롭게 했다(마 13:29)

VI. 성경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얻어야 한다.

놀랍게도, 준비론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이 주제에 관한 그들의 책에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는다. 사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실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은 이미 믿는 자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여호사밧(역대하 19:3), 에스라(라 7:10), 욥(욥 11:13)은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신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사람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할 것을 명령한다(삼상 7:3). 이것은 그들이 그러한 명령에 부응할만한 능력이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의 주된 증거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기에 선한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눅 1:17) “그(세례 요한)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킨다” 이 본문은 준비적인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위하여 구원하실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의미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다.

VII. 결론

우리는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근거하여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는다. 우리는 준비론을 옹호하는 신학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택자를 위해 획득된 주권적이고, 저항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교리에는 결연히 반대를 해야만 한다. 만약 유기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며, 그 원천은 선택의 범주 밖에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아울러 그럴 수조차 없다. 따라서 준비적 은혜는 치명적인 타협이며, 전적인 부패의 교리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 그리고 제한속죄에 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유기자들은 준비적 은혜를 거절을 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성도의 견인 교리는 훼손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교리이든지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기본 정의조차 변조하는 새로운 범주나 자격을 고안하려고 하는 혼합신학을 거절한다. 구원을 주지 않는 은혜란 은혜가 아니다(딤후 2:11). 그러므로 우리는 토마스 쉐퍼드가 제시하는 “각성”, “계몽” 또는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개념을 거절한다. 중생 이전에 비중생자 안에서 어떠한 은혜의 작용도 있을 수 없는바, 중생은 은혜의 첫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작용에 선행하는 어떠한 작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기도 전에 극적인 회심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행동이다.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 어머니 무릎 위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시절을 모르는 성도들 앞에 이런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신앙고백이 이뤄지기도 전에 극적인 회심 경험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아이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요구될 수 없다. 사람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면 충분하다.

준비적인 은혜 때문에, 모든 영혼이 길고 고된 죄의 확신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에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의심과 확신의 결여로 이어진다. 그것은 참된 성도들이 신앙고백을 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치에서 용서를 체험하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주의 날 33)에 규정된 개혁적인 회심 교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장로교의 전통이 준비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청교도들 사이에서 준비적 은혜라는 개념이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자연인은 선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가운데 죽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회심할 수 없으며, 회심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Endnotes

1 Norman Pettit, *The Heart Prepared: Grace and Conversion in Puritan Spiritual Lif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3.

2 William Perkins, *The Whole Treatise of the Cases of Conscience*, Book I, Chapter V, pp. 50-51; spelling of original modernized; italics mine.

3 Perkins, *Whole Treatise*, Book I, Chapter V, p. 51; italics mine.

4 Young Jae Timothy Song, *Theology and Piety in the Reformed Thought of William Perkins and John Preston* (Lewiston, NY: The Edwin Mellen Press, 1998), p. 132

5 Song, *Theology*, p. 133.

6 Song, Theology, p. 134.

7 Song, Theology, pp. 136–137.

8 Song, Theology, p. 139.

9 Song, Theology, p. 139.

10 Song, Theology, p. 137.

11 William Perkins, The Courtenay Library of Reformation Classics, vol. 3, The Work of William Perkins, Ian Breward (ed.) (England: The Sutton Courtenay Press, 1970), p. 406.

12 Perkins, Works, p. 405.

13 Pettit, The Heart, p. 62.

14 Pettit, The Heart, p. 63.

15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Durham, NC: The Labyrinth Press, 1983), p. 50.

16 William Ames, The Marrow, p. 50.

17 Ames, The Marrow, p. 160.

18 William Ames, Conscience With the Power and Cases Thereof: The English Experience: Its Record in Early Printed Books Published in Facsimile (Amsterdam and Norwood, NJ: Theatrum Orbis Terrarum Ltd., and Walter J. Johnson Inc., 1975), Book II, Chapter 4, pp. 8–9.

19 Ames, The Marrow, p. 7.

20 Ames, The Marrow, p. 7; italics mine.

21 Eusden hastens to add, “It is not being suggested here that Ames was an Arminian-within-the-gates, or a quasi-Remonstrant” (Ames, The Marrow, p. 7).

22 Ames, The Marrow, p. 50.

23 Eusden writes, quoting a biographer of Ames, “Ames plainly deserved our saying in his honor what the mothers of Israel once said in honor of David: ‘Other theologians have slain

their thousands, but Ames his tens of thousands!’ Ames was thought to be something of a giant killer in theological debate” (Ames, *The Marrow*, p. 7).

24 Eusden notes, “For a century and a half William Ames’s *Marrow of Theology* held sway as a clear, persuasive expression of Puritan belief and practice. In England, Holland and New England nearly all those who aspired to the Puritan way read the book. No matter what their aspirations, undergraduates at Emmanuel College, Leyden, Harvard and Yale had to read the *Marrow* in Latin as part of basic instruction in divinity. In a burst of enthusiasm Thomas Hooker (1586?-1647) of Hartford once recommended the *Marrow* and another of Ames’s works to fellow clergymen: ‘They would make him (supposing him versed in the Scriptures) a good divine, though he had no more books in the world’” (Ames, *The Marrow*, p. 1).

25 Pettit, *The Heart*, p. 67.

26 Pettit, *The Heart*, p. 67.

27 Pettit, *The Heart*, p. 67.

28 Pettit, *The Heart*, p. 67.

29 Richard Sibbes, *Works*, vol. 1 (Edinburgh: Banner, repr. 1979), p. 73.

30 Richard Sibbes, *Works*, p. 74.

31 Pettit, *The Heart*, p. 67.

32 Pettit, *The Heart*, p. 68.

33 Pettit, *The Heart*, p. 68.

34 Pettit, *The Heart*, p. 70.

35 Pettit, *The Heart*, p. 73.

36 John Owen, *Works*, vol. 3 (Edinburgh: Banner, repr. 1966), p. 229

37 Owen, *Works*, vol. 3, p. 229.

- 38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MI: Eerdmans, repr. 1973), p. 291.
- 39 Owen, *Works*, vol. 3, p. 229.
- 40 Owen, *Works*, vol. 3, p. 230.
- 41 Owen, *Works*, vol. 3, p. 234.
- 42 Owen, *Works*, vol. 3, p. 236.
- 43 Owen, *Works*, vol. 3, p. 236.
- 44 Edward Hindson (ed.), *Introduction to Puritan Theology: A Reader* (Grand Rapids, MI: Baker, 1976), p. 100.
- 45 Joseph Alleine, *An Alarm to the Unconverted* (Edinburgh: Banner, repr. 1978), p. 100.
- 46 Alleine, *Alarm*, p. 140.
- 47 William Guthrie, *The Christian's Great Interest* (London: Banner, repr. 1969), p. 37.
- 48 Guthrie, *Interest*, p. 53.
- 49 Guthrie, *Interest*, pp. 53-54; italics mine.
- 50 Guthrie, *Interest*, p. 195.
- 51 Guthrie, *Interest*, p. 204.
- 52 Thomas Shepard,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Morgan, PA: Soli Deo Gloria, repr. 1997), p. 468.
- 53 Shepard, *Parable*, pp. 476-477.
- 54 Shepard, *Parable*, p. 481.
- 55 Shepard, *Parable*, p. 482.
- 56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 2 (Ligonier, PA: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1993), p. 249.

57 à Brakel, Reasonable, vol. 2, p. 258.

58 à Brakel, Reasonable, vol. 2, p. 259.

59 William G. T. Shedd, Dogmatic Theology, vol. 2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1), p. 512.

60 Shedd, Theology, vol. 2, p. 512.

61 Shedd, Theology, vol. 2, p. 512.

62 Shedd, Theology, vol. 2, pp. 512-513.

63 Shedd, Theology, vol. 2, p. 512.

64 Shedd, Theology, vol. 2, p. 513.

65 Shedd, Theology, vol. 2, p. 514.

66 Shedd, Theology, vol. 2, p. 515.

67 Shedd, Theology, vol. 2, p. 516; italics mine.

68 Shedd, Theology, vol. 2, p. 516.

69 Shedd, Theology, vol. 2, p. 518.

70 Shedd, Theology, vol. 2, p. 518.

71 Shedd, Theology, vol. 2, p. 518.

72 Shedd, Theology, vol. 2, p. 528; italics mine.

73 Shedd, Theology, vol. 2, p. 526.

74 Herman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repr. 1990), p. 361.

75 Witsius, The Economy, p. 363.

76 Witsius, The Economy, p. 363.

77 Witsius, The Economy, p. 363.

- 78 Witsius, *The Economy*, p. 365.
- 79 Witsius, *The Economy*, p. 366.
- 80 Kuyper, *The Work*, p. 284.
- 81 Witsius, *The Economy*, pp. 371-372.
- 82 Kuyper, *The Work*, pp. 290-291.
- 83 Kuyper, *The Work*, p. 291.
- 84 Sibbes, *Works*, vol. 1, p. 44.
- 85 Shedd, *Theology*, vol. 2, p. 514.
- 86 Pettit, *The Heart Prepared*, p. 19.
- 87 Pettit, *The Heart Prepared*, p. 19.
- 88 Pettit, *The Heart Prepared*, p. 160.